

배포일시	2020. 1. 22. (수) 11:00 (총 1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담당자	과장 김충렬 담당 옥순기
		전화번호	070-7850-4171

## 1월 21일자, <대전일보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- 눈없는 겨울..속타는 제설공무원(대전일보, 2020. 1. 21.)

### 【 해명 내용 /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△ ... 올 겨울 강한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제설대책을 강화한 것이다.

하지만 기상예보와 달리 눈이 내리지 않아 제설활동 실적은 미미하다.

□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- 대전지방기상청은 2019년 11월 22일에 발표한 겨울철 ‘3개월 전망’에서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고 전망하였습니다.

#### < 2019년 11월 22일 3개월 전망 발표자료 >

□ (기온 전망) 이번 겨울 찬 대륙고기압 세력은 평년보다 강하지 않아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(그림 1-a), 때때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은 크겠습니다.

※ 평년 기온범위: 12월 0.1~1.1℃, 1월 -2.8~-1.4℃, 2월 -0.6~0.8℃

□ (강수 전망) 12월과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고, 1월에는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(그림 1-b).

- 북서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.
-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7개의 태풍으로 최근 6개월 대전·세종·충남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74.5% 수준(737.3mm)으로 심한 기상가뭄은 없었습니다.